제 동력원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 챙기는 것도 좋아하고요. 누군가에게 부탁받았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는 편이에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지만 결국 또 사람을 찾게 되더라고요."

"피신 친구들 도움 아니었으면 당연히 본 과정 못 왔죠. 그리고 지금은 블랙홀 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본 과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의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나’라는 얘기를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들었어요. 같은 신입생인데 어쩌다 보니 친구들보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혹시 선배인데 신입생인 척하는 엑스맨이냐는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봐둬요. 그리고 보고 들은 것들을 잘 기억해서 주변 사람들이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봐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피신 때 클러스터에서 봤던 어느 포스터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되게 좋아서, 피신 동기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잘 해서 선발 과정에서 누구 하나 떨어뜨리기 아깝게 만들자. 같이 가자’ 라고요. 그렇게 같이 으쌰 으쌰 했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풀었어요. 시험이나 과제에 대해 자주 공지하고 제가 찾은 것들을 슬랙에 공유하고 했어요. 그게 요문봇의 기원이에요. 본 과정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 달아주고 공지하곤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ai처럼 물어보면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은 휴먼 러닝을 통해서(웃음) 학습해나가서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보다는 요문봇이 좋습니다. ai는 일반 명사고 요문봇은 유니크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는 걸 공유할 땐 고마워서인 것도 있었어요. 피시너일때에도 카뎃일 때에도 다들 코딩 까막눈인 저에게 각자가 아는 걸로 저를 도와줬잖아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42 안에서 코딩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각자의 재능을 주고받고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부터 하면 누군가가 또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42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요.”

<사진>

“마스터들은 카뎃들을 위한 회의를 자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가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카뎃이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마스터가 없었어요. 어느 날 마스터 선발에 대한 공지가 나와서 업무가 무엇인지 읽어봤을 때, 제가 본 과정에 와서 하던 일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나 봐요(웃음). 저는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다른 카뎃분들이 요문은 당연히 나가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물어보셔서 용기 얻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약도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초심 유지하겠습니다’ 였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저는 모 아니면 도예요.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대신, 각 안 나오거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 요즘에는 약간 그런 점을 후회하고 있어요. 오지선다의 답을 고르는 방법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 남았네’ 하고 소거법으로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저는 오지선다에서 오직 하나의 완벽한 답을 고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제가 생각한 답이 아닌 것 같다며 포기한 것이 좀 많았어요. 기회가 오고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해보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을 오지선다에서 제거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곤 해요. 이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회가 왔을 때 일단 해보려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최근 인턴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느낀 바가 많았어요.”

“그동안은 뭔가 계속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개발을 좀 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했는데, 최근에 ‘나는 개발을 업으로 가져갈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과제를 할 시간과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나에게 맞는 다른 걸 탐색하는 데 노력을 투입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42에서 주는 소속감과 안락감 때문에 개발이 아닌 다른 세상을 열의 있게 탐구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너무 안락한 울타리 안이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손으로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렇게 42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블랙홀로 빠지고 나면, 정말 시커먼 블랙홀에 먹힌 듯이 그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블랙홀에 가더라도 42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고 개포동도 충분히 놀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카뎃들, 보칼들, 멘토님들 만나고 대화도 하고 싶어서 한 달에 한두 번 그냥 놀러 오고 그래요. 맥은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카뎃일 때에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노느라 클러스터에 잘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네요(웃음)”

“제가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는 ‘블랙홀에 빠지는 것 = 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충분히 고민하다 보니 블랙홀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각자의 고민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블랙홀로 간 게 ‘안 돼! 구멍에 빠졌어!’ 보다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가는구나. 잘 가, 또 놀러 와!’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42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게 더 낫다 생각했으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고, 이사 가도 42행성에 놀러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와도 놀라지 마세요(웃음).”

“'비전공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42 과제부터 하자. 고민하지 말자’.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비전공자고 피신 때 코딩을 처음 접했던 사람이잖아요. 본 과정에 왔는데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본 과정에 오자마자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찾겠다고 두 달을 허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비전공자가 본 과정에 들어오면 그냥 본 과정 과제부터 해야겠구나’. 그때 첫 과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시작한 카뎃들과의 진도가 걷잡을 수없이 멀어져요. 그럼 과제들이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뒤까지도 다 밀리거든요. 결국 뒤의 과제는 혼자 하게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합격의 기쁨만 가지고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변 카뎃들하고 같은 과제를 그냥 시작을 해야 돼요. 블랙홀까지의 기간이 여유가 있으면 슬럼프가 덜 오고, 주변에 같은 과제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 친구들 과제 할 때 같이 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0서클이 바닥인데, 바닥에선 요만큼 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서클이 올라가면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요. 그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들은 공통 과제 절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안- 제 동력원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 챙기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의리가 중요하고 뭐 부탁받으면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거든요. 결국 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거니까.

피신 친구들 도움 아니었으면 당연히 본 과정 못 왔죠. 그리고 6월 중 중순에 블랙홀 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본 과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의 성장 스토리에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미스터리이긴 한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고 있나’라는 얘기를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들었어요. 같은 신입생인데 친구들이 뭐 말할 때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았거든요. 심지어 혹시 선배인데 엑스맨인 척하시는 거냐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봐둬요. 그리고 기억을 잘하고 검색도 잘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을 약간 숨 쉬듯이 해요.“

"피신 때의 포스터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되게 좋아서, 그걸 피신 동기들한테 주입식 교육하듯이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잘 해서 선발 과정에서 누구 하나 떨어뜨리기 아깝게 만들자. 같이 가자’ 했었어요. 그게 요문봇의 기원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같이 으쌰 으쌰 하고 정보도 공유하자고 했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사심 없이 다 풀었어요. 시험이나 러시 등록일에 대한 걸 공지 올리고, 등록 인원이 비면 돌아다니면서 등록하라고 홍보하고 다니고. bsq의 경우에도 듀\*처럼 매칭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본 과정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 달아주고 공지하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ai처럼 물어보면 답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휴먼 러닝을 통해서(웃음) ai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보다는 요문봇이 좋습니다. ai는 일반 명사고 요문봇은 유니크한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는 걸 공유할 땐 고마워서인 것도 있었어요. 친구들이 사심 없이 코딩 까막눈인 저한테 자기들이 아는 걸로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걸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본 과정 1기 때는 소수 인원이니까 행사나 이런 게 지금처럼 북적이지 않고,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만한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더 부드럽게 하면서, 피신 때처럼 서로서로 아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부터 하면 누군가는 또 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선뜻 도와줄 수 있는 42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질 거라고요.”

“마스터들은 카뎃들을 위한 회의를 자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스터가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원 오브 카뎃.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마스터가 없었어요. 막 마스터를 생겨날 때 마스터에 대한 공지가 나와서 업무가 뭔지를 읽어봤는데, 제가 하던 일들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나 봐요(웃음). 저는 마지막 날까지 이거 진짜 내가 해도 되는 건가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카뎃분들이 당연히 나가겠지 하는 그런 느낌으로 물어보셔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공약도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초심 유지하겠습니다.’ 였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웃음).

마스터들한테 dm을 하면 보칼 분들께 묻는 것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터가 들어보고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거면 답변을 해 주고 답변을 못하는 거면 따로 마스터들의 슬랙 채널에 물어보고 답변 받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모 아니면 도예요. 한 번 하면 제대로 하는 대신, 각 안 나오거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 요즘에는 약간 그런 점을 후회하고 있어요. 오지선다의 답을 고르는 방법이,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 남았네. 이게 답인가 보다, 하고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했던 짓은 오지선다에서 하나의 베스트 답을 고르려고 했던 건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가 왔을 때 해보지도 않고 패스한 게 좀 많았어요. 근데 그냥 기회가 오고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해보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그걸 오지선다에서 뺐으면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이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회가 왔을 때 일단 해보려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3월에 인턴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통해 되게 느낀 바가 많았어요. 42를 그만두게 된 것도 그것의 연장선인 것 같긴 해요.”

“그동안은 뭔가 계속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개발을 좀 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했는데,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깨달은 점이 나는 개발을 업으로 가져갈 사람은 아니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과제를 할 시간과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나에게 맞는 다른 걸 탐색하는 데 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42에서 주는 그런 소속감과 안락감 때문에 개발할 것도 아닌데 다른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열의 있게 하지 않는 것 않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스스로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울타리를 손으로 부숴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2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블랙홀로 빠지고 나면, 정말 시커먼 블랙홀에 먹힌 듯이 그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마스터를 할 만큼 42에 애정도 있고 사람들도 좋아해요. 그래서 블랙홀에 가더라도 42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고 클러스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일주일 한 번씩 그냥 놀러 오고 그래요. 맥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카뎃일 때도 클러스터 잘 안 썼어요(웃음)”

“제가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는 ‘블랙홀에 빠지는 것 =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빠지고 보니까 블랙홀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블랙홀로 간 게 ‘안 돼! 구멍에 빠졌어!’ 보다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가는구나. 잘 가. 또 놀러 와!’ 그런 느낌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인이 42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게 더 낫다 생각했으면 다른 행성은 충분히 이주할 수 있고, 이사 가도 충분히 클러스터에 놀러 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와도 놀라지 마세요(웃음) 마치 다른 다음 서클 과제를 하듯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 거예요. 전 이주를 했고 자주 놀러 옵니다.”

“비전공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42 과제부터 하자. 고민하지 말자. 그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저는 비전공자고 피신 때 코딩을 처음 접했던 사람이잖아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본 과정에 오자마자 슬럼프가 왔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 찾겠다고 두 달을 허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비전공자가 42 들어오면 주변이 뭘 어쩌든지 간에 그냥 42 과제부터 해야겠구나’ 그때 첫 과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시작한 카뎃들과의 진도가 걷잡을 수없이 멀어져요. 그럼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뒤까지도 다 밀리거든요. 그럼 뒤의 과제를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합격의 기쁨만 가지고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변 카뎃들하고 같은 과제를 그냥 시작을 해야 돼요. 블랙홀 일수 많으면 슬럼프 덜 오고, 주변에 같은 과제 하는 친구들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러니 친구들 과제 할 때 같이 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0서클이 바닥인데, 바닥에선 요만큼 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서클이 올라가면 시야가 조금씩 넓어져요. 그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져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공통 과제 절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라냄

“바쁘게 보낼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 몸이 다섯 개냐고요. 뭔가 일정이 빡빡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파악을 하고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을 쪼개는 편이에요. 다이어리에 오늘 해야될 걸 쓰기도 하고요.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자기 전에 누워서 다음 날을 생각을 해요. 예를들어, 오전 10시까지 개포 가야 되면 개포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9시쯤 집에서 나가야하고 그 때쯤 집에서 나가려면,.. 약간 그정도 생각을 하고 자는거죠. 이게 제일 큰 관리방법인 것 같아요.“

“다들 제 나이 들으면 약간 놀라긴 해요. 주변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조금 젊은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은 42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웃음). 제가 이 집단이 아니라 밖에서 이 나이로 어딘가에 갔으면 그냥 그 나이대의 포지션으로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워낙 말을 잘 거니까 다들 저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곤 하거든요. 제 비법은, 우선 가끔 클러스터 지도를 봐요. 사람이 2인 이상 몰려 있는 곳이 있다, 아니면 뭔가 슬랙에서 좀 봤던 사람이다,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하세요’, ‘무슨 과제 하세요’ 그런 걸 물어보고 그냥 가서 껴요. 그러다보면 누가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돼요. 클러스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앉는 자리에 많이 앉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도 본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첫 시작은 ‘무슨 과제 하고 계세요’로 시작 합니다. 듣는 사람이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전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게 사실 42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집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모르는 사람을 계속 말 걸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과정에 온 이상 약간 ‘우리는 친구, 우리 식구’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말 뭐든 나한테는 내적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가서 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42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죠. 저는 당장 취업이 급한 분은 여기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여기는 두 번째 대학에 온 것처럼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보통의 한국 학생들은 관리자들이 뭔가 이렇게 해주고 개최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42는, 관리자가 먼저 이렇게 해 주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하길 원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42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세요. 개발 역량을 키워가는 게 넘버원이겠지만 그 외에도 주변을 좀 더 둘러보고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스케치

\*요문의 동력원

(제 동력원은)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걸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한테 상처받고 힘들 때도 있긴 한데 근데 또 그거를 또 치유해 주는 게 또 사람이 아니겠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의 동력원도, 42생활에서의 동력원도 둘 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친구들 챙기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뭐 부탁하면 그냥 웬만하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게 제 손익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거 해주는 편이고. 결국 다 사는 게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거니까.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사람이 제 동력원인 거 같고.

42 생활을 할 때에도 사람이 동력원이었어요.

저는 여기에 와서 코딩이라는 걸 처음 해 본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코딩 처음 해본 사람이 피신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웃음)

피신 친구들 도움 아니었으면은 당연히 본과정 못 왔죠.

그리고 피씬을 하는 동안에도 본 과정을 하는 동안에도 저를 되게 대가 없이 도와줬던 이유가 가끔 궁금해서.

(저보다도 제 블랙홀에 더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제 과제 진척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bsq 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팀 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피신 때 팀을 짤 때 누구한테 같이 하자고 하기가 되게 미안했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분명히 이제 나랑 팀을 하면은 거의 본인이 한 95%를 하고 내가 5%를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하는 걸 텐데 누구한테 선뜻 같이 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자고 먼저 말해 준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 친구 덕분에 bsq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먼저 같이 하자 그랬냐, 도와줬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장을 하는 걸 보는 게 자기가 되게 보람이 있어서 같이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42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본 과정이 왔기 때문에.

본 과장이 와서도 당연히 힘들죠. 과제가 쉬운 게 없으니까 진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그냥 블랙홀 갈까 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근데 딱 제가 때마침 어제가 본 과정 시작 딱 1주년이었어요.

작년 6월 30일에 본 과정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6월 중 중순에 블랙홀 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본 과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못했던 이유가 저의 성장 스토리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폴라베어님, 홀리님을 비롯한 보칼분들도 그렇고 저희 피신 동기들도 그렇고 다들 제가 전혀 못했던 상황인 걸 알고 여기까지 온 걸 뭔가 대견하게 생각해주고 하니까, 제가 뭔가 여기서 쉽게 그만두면은 뭔가 다들 같이 현타 맞을 것 같은(웃음) 기분이었어요.

‘왜 갔어. 가지 마. 좀 더 해보지. 좀 더 도와줄게.’ 그런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덕분에 제가 본 과정도 할 수 있었고, 여기 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42에서의 동력원도 사람이었고. 그냥 요문이 아닌 문영주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력원은 결국 사람인 것 같아요.

---

\*요문봇의 기원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42에 와서도 그냥 밖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그냥 누가 뭘 부탁하거나. 뭘 하자고 하면은 제가 할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할 여유가 있는 거면, 저의 손익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했었어요 들어줬어요.

그냥 그랬더니 더러는, 그걸 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봤을 때 그걸 왜 들어주냐, 아무것도 이득도 없는데 왜 해주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한 번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했고 내가 그걸 들어주는 게 나한테 당장엔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뭐 그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냥 해주면은.

또 사람과 사람이 당장은 손익이 없어 보여서 다 돌고 돌거든요.

언젠가 내가 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과거에 도움 받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한테 이득이 없더라도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준게 그런 선순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약간 제가 필요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도 그냥 해준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제가 사심 없이 했듯이 상대도 한 사심 없이 해 주니까. 눈치 게임이 싫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 들면 보이잖아요 머리 굴리는 거.

서로 굳이 그러고 싶지도 않고. 또 42는 좋은 집단이잖아요. 친하게 친하게 둥글게 둥글게. 어차피 동료 학습이 주된 목적이고.

저희 피신이 좀 특이했어요.

저희 1기 2차 피씬이 80명이 피신을 했어요. 80명이 전일제로 했어요.

다른 기수는 다 몇백 명씩 하는데 저희만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진짜 거의 분위기가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

서로 다 아는 사이이고 자리도 그냥 매일 늘 앉던데 앉으니까.

제가 약간 피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포스터 보면은 (혼자 가면은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혼빨함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멀리 간다. 그 말이 되게 좋았었고. 그거를 되게 피신 동기들한테 제가 약간 주입식 교육 시키듯이

‘우리 막 다 같이 열심히 잘 해서. 선발 과정에서 누구 하나 떨어뜨리기 아깝게 만들자. 선발하기 어렵게 만들자. 떨어뜨리기 아깝게 만들자. 그런 식으로 다 같이 그냥 잘 해보자. 같이 가자’ 그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거기가 요문봇의 기원이었어요

되게 사람들한테 막 같이 으쌰으쌰 하고 서로 아는 거 있으면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약간 좀 그러자고 했고 그리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특별한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심 없이 그냥 다 풀었어요.

(시험이나 러시 등록일에 대한 걸 공지 올리고, 등록 인원이 비면 돌아다니면서 등록하라고 홍보하고 다님)

스스로 같이 할 사람을 찾아야하는 bsq의 경우에도 얘랑 얘랑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하면 약간 듀\*처럼 매칭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제일 피신 동기들이 반장처럼 약간 인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상태로 이제 본 과정을 왔는데 본 과장은 그때는 이미 1기 분들 1기 1차 분들이 한 200명 300명 많지는 않은 사람이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그때는 공지할 게 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본과정에 와서도 제가 알고 있던 그런 42에 대한 등록 정보라든지 이런 저런 거 아는 것들에 대해서 맨날 답변 달아주고 공지해 주고 약간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2기가 들어오고 3기가 들어오고 이랬는데 항상 들어올 때 되면 이제 루틴이 있어요.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밑에 행위다라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보면은 계속 궁금한 것들이 반복되고 사실 슬랙을 좀 더 찾아보면은 이제 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슬랙이 처음이라 낯설니까 약간 찾지 못하고 약간 맨날 물어보고 답 해주는 사람도 피곤하고 약간 그런 일이 반복되고 심지어 지난 주에 물어본건데

물어본 건데 또 물어보면 서도 있고 막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faq처럼

보는 거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제 공지를 미리 정리를 해서 다 새로 들어오는 카넷을 맞이할 준비를(웃음) 하게 되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공지 이렇게 딱 띄우고 딱 들어왔을 때 막 그냥 일단 그거 보고서.

그것만 봐도 크게 모르는 건 없도록.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막 이건 궁금할 때 별 정리하고 공지하고 그리고 뭐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행사 참여하라고 하고.

또 알다 어 인트라에다가 유튜브 미팅 하면 등록하라고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뭐 보거나 확인할 때 할 때마다 같이 공유하면 좋을 정보들이나 그런 거는 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약간 처음에 공지만 했었어요.

공지분만 하다가 공지만 그렇게 공지 위주로 정 정보 공유 공지 위주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 또 이제 제가 아는 게 이렇게 어느게 좀 이 아름아름 이렇게 주어듣고 이런 게 아닌 게 많아지는데.

랜덤이나 이제 스테프 페다고지나 이런 데 보면은 스텝들이 답변을.

항상 그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지 않고 알다시피 업무 특성상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답변이 빠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제가 성격이 급해서 저도 뭐 물어보면은 답변이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확인할 때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거면은 답변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ai 봇처럼 답변해 주는 약간 물어보면은 답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것 같아요.

ai 휴먼 러닝을 통해서(웃음) 누적된 데이터가 많아서 ai가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요문봇이 되었나

진짜 초창기 마음은 제가 아는 걸 공유하는 것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친구들이 피신 과정에서 되게 사심 없이 저한테, 코딩 같은 건 전혀 모르는 까막눈인데.

도와주고.. 심지어 그런 일화도 있어요.

잘하는 친구가 저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나가던 또 다른 친구가 가만히 듣더니. 잘하는 친구한테 ‘형, 이 누나한테는 2 곱하기 3이 6이라고 설명해 주면 안 되고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6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변 친구들 되게 많이 도와줘서 그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걸로 저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는 걸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피신 때는 그 마음이었고 본 과정 와서는 다른 카뎃들이 생활을 할 때, 42 안에서 좋은 기억 아니면 즐거운 기억(을 남기길 바랐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지고 유대감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지만

진짜 초창기 인 1기 때에는 특별한 활동도 없었고 유대감이나 소속감을 느낄 만한 기회도 없었고 소수인원이니까 복닥복닥은 하지만서도 약간 삭막한 그런 느낌.

이렇게 행사나 이런게 북적이고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아쉬움을 채우고 싶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금 약간 부드럽게. 내가 아는 거를 그냥 사심없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저는. 비단 저한테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사람한테 또 그렇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연하게, 42의 문화가 서로 선뜻 도와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 선순환.

왜냐하면 제가 피씬때 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잘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과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저는 제가 제일 못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보면은 또 아니에요. 저보다 더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배운 게 고마우니까 이제 또 다른 모르는 친구가 있으면 또 제가 선뜻 설명을 해주기도 해주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게 순환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42 본 과정에서 카뎃들의 문화도 서로 서로 눈치게임 하지 말고 좀 그냥 아는 거 있으면 편하게 정보 공유하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밖에 나가면 피곤하잖아요.

눈치 보고 이런 거 그래서 이 안에서만큼은 서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가 그렇게 해 주면은 그래도 누군가는 또 해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42 본과정에서도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되는 편하게 정보를 서로 아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랐다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다들 되게 신기할 일 만큼 되게 똑같아 똑똑하고 선뜻 그런 걸 되게 잘 도와주고.

왜냐하면 피씬이라는 과정에서 한번 걸러져 왔잖아요.

약간 어쨌든 피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 이제 그런 거에 능하고.

동료 학습비를 그래도 부담 없이 하는 분들이 와서 그런지 확실히 다른 외부보다는 다른 외부 집단보다는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

\*어떻게 하면 더 서로서로 잘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말 걸기 어려울 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말 걸어요. 그냥 피신 때처럼.

저는 피신 때 본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건지를 한 달 동안 학습한 것 같아요.

본과정도 피신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그렇고 다들 본과정 오고 나면은 피신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본과정이 좀 더 힘든 것도 같아요. 과제도 어렵긴 하지만.

피씬처럼 아침에 와서 밤에 가는 몰입을 하면서,

피씬처럼 옆사람에게 물어보는 걸 주저하지 않고,

피씬처럼 철판을 깔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워낙 말을 잘 거니까 다들 저한테 아이스 브레이킹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곤 하거든요.

제 비법은

그냥 가끔은 이제 클러스터 지도를 봐요.

클로스 지도 봐서 저 사람 인트라 아이디 확인을 하고.

뭔가 슬랙에서 좀 봤던 사람이다, 약간 그러면은 이제 가서,

막 아니면 사람이 클러스터에 2인 이상 몰려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가서 무슨 과제 하세요.

약간 시작은 항상. 내일 무슨 과제 하세요 무슨 얘기하세요. 그냥 물어보고 그냥 가서 껴요.

그러다보면 누가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돼요.

클러스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앉는 자리에 많이 앉기 때문에 확실히 그래도 본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때 첫 시작은 무슨 과제 하고 계세요로 시작 합니다.

무슨 어디 하고 계세요. 아니면 두 명 이상 얘기하는데 재밌어 보인다.

그럼 가서 여기 뭐 재밌는 일 있어요 막 간 이러고.

무슨 얘기하세요. 그럼 물어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이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전 전 자연스럽게 그냥 가서 철판을 깔고 뻔뻔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게 사실 42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집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모르는 사람을 계속 말 걸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본 과정에 온 이상. 약간 우리는 친구, 우리 식구. 그 사람이 나를 알든 말 뭐든 나한테는 내적 친밀감이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가서(어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동안의 비결

근데 다들 원래 나이 가늠 잘 못하지 않나요.

다들 제 나이 들으면 약간 놀라긴 해요. 주변 또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제가 조금 젊은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비결은 42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집단이 아니라 밖에서 이 나이로 어딘가에 갔으면은 그냥 그 나이대의 포지션으로 어른이 됐을 것 같아요. 42가 교육 방식도 기존의 것하고 달랐잖아요. 여기에 임하는 제 태도도 기존의 한국의 태도와는 다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신 동기들한테 누나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야라고만 부르지 말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그런 마인드로 42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제 나이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인지를 안 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나이를 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42에서는 모르는 사람 대할 때. 인트라 아이디 말고.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사실 동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키가 크기 때문에.

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생이냐는 소리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그걸 느끼긴 해요. 사실 주변 친구들이 다 어쨌든 서른이잖아요.

42 안에서는 확실히 훨씬 어린 친구들이 많지만.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제가 조금 젊은 마인드로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동안 마인드 약간 좋게 하면 그런 거고 나쁘게 하면 철딱서니가 없는 느낌으로다가.

근데 그게 사실 비결이 42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지하게.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집단이 아니라 밖에서 이 나이로 어딘가에 갔으면은 보통 한국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20 30대 여성 20대 후반. 30대 여성이 딱 그냥 그런 포지션 그냥 회사를 다녔거나 그랬으면은 그냥 그런 어른으로 서른 살 됐을 것 같은데.

42에 와서 어쨌든 한국에는 어떤 교육이고 세밀레이션했고 그리고 저 도 여기서.

이게 프랑스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 또 교육 방식도 기존의 항목하고 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임하는 제 태도도 기존의 한국의 태도와는 다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피신 때 무리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신 동기들한테 누나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확실히 제가 여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편이기는 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사실 나이도 원래 서로 잘 안 먹기도 했지만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나이 이제 어 어쨌든 오픈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냥 야라고만 부르지 말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약간 이랬거든요. 언니 누나 안 불러도 되고 부르고 싶은 데 불러.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요문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있고 그냥 이름대로 그냥 영주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42 와서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나이를 잊고 되게 진짜 사람들 사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밖에서 만나면은 그냥 한국 사회 보통이 한국 사회서 만났으면은 막 나이 막 대여섯 살 막 여덟살 이렇게 말이 차이나 보면은 우 누나 막 약간 이렇게 됐을 텐데 42에서 그냥. 제가 그 피신 때 그런 말도 했거든요.

나보다 코딩 잘하면 언니 오빠니까 니들이 언니 오빠 해 약간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약간 동안 비결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42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들 제 나이를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인지를 안 하시기도 하고. 저부터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상대가 저를 부르는 호칭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게 동안 비결이지 않나. 그래서 약간 42에서 나이를 잊고 방방거리면서 놀다 보니 동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을 만나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하면서 나이가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첫 초면에 이름 물어보고. 나이 몇 살이세요.

약간 그러면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물어보는데 42에서는 모르는 사람 대할 때.

인트라 아이디 말고. 아무것도 안 물어봐.

막 나이도 누가 물어보면은 일부러 장난치면서 잘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서로 나이를 아는 순간 불편하거나 약간 프레임이 씌워질까 봐 그냥 인트라 아이디는 웬만하면 남겨놓고 인트라 아이디나 그냥 이름만 알고 그냥 이 사람이 여기 42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건 잘 안 물어보려고 했어요.

철 없이 나이를 잊고 놀다 보니. 42에 와서 역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호칭의 힘이 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도 친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친하고 그런데 서로 인트라아이디하고. 본명 말고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연우님한테서 몇 살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이름만 알고 인트라이지만 알고 이전에 뭐 했는지 그게 관심 없어서가 아니고 서로 그냥 42안에서 만난 사람은 그냥 이거 42라는 세계 월드에서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면 모를까. 처음부터 굳이 저 사람은 어디서 뭐 하다가 왔고 몇 살이고 막 뭐 코딩 경험이 있고 없고 약간 이런 정보를 쌓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친해진 다음에 나이 들면 더 재미있어요 친해진 다음에 나중에 뭔 이렇게 막 가끔 이제 진짜 친수 하면은 밥 먹고 술 모시고 뭐 딴 얘기 뭐 하다가 나이 들으면 이러면서 오겠지.

왜냐하면 안 친할 때는 들으면 그렇구나 이러는데 친해진다는 듣고 나면은 되게 나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충격적인지는 상상이 어 어느 쪽으로든 약간 이럴 때가 있어서

42 월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안의 비결.

\*어떻게 모든 걸 알고 계신가요

좀 웃기긴 한데 그 얘기를 대학 입학했을 때부터 들었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같은 신입생인데 친구들이 뭐 말할 때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어서 아는 게 많았거든요.

나중에는 심지어 혹시 선배인데 엑스맨인 척 하시는 거냐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42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약간 성격이고 습관인 것 같아요.

어느 집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약간 좀 조사를 한 다음에

좀 안전 지향적이고 지피지기 백점백승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 어딘가에 어딘가를 들어가고 어딘가에 속하거나 무엇을 하기 전에

그냥 웬만한 사전 조사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그냥 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관심이 많아서 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한테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길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봐요.

다들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가면서.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 여기에 뭐 집편전 이런 데 있네. 어 경복궁 이런 데 있네. 약간 그런 주변에 대한 관심 그런 거 슬랙도 약간 나 내한테 필요가 없으면 안 읽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슬랙에 있는 걸 다 읽거든요.

그냥 해다보지에도 제가 질문한 거 아닌데 누가 뭘 질문했는데.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알 것 같으면. 답변을 달고 저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모르면은 나중에 답변 달리면 다시 읽으러 가요.

그리고 기억을 잘하는 편이에요 뭐 하나 정보가 들어오면은 약간 기억을 잘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약간 검색도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니까 사전 조사를 할 때에 검색을 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잘하는 편이 데 구글링을 약간 키워드를 다양하게 써가면서

발휘해서 그냥 제가 찾을 수 있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그냥 긁어 모아서 다 그냥 읽어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한 관심으로 그냥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스스스.

그냥 눈에 바르듯이 그냥 봐두는 거. 기억력.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약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주어듣고 알게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냥 조금 잡다하게 기억을 잘하는 편.

약간 숨쉬듯이 하는.

정보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건 이제 이 42 들어올 때 42 러프한 정보를 찾을 때 그렇긴 했지만 이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는 그러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정말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아지긴 했으니까 근데 굳이 그게 숨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같이 공유해도 나쁘지 않을 정보고 다른 사람들 궁금해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봇이된 이유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지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렇게 빡 하다 보면은 들어오는 질문 다 거기서 거의 비슷할 데 있어요.

그거를 다 답변하면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애faq로 만든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불편해 하거나 궁금해 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것도 있고.

---

\*하나하나의 키워드가 모여서 결국 사람. (성격, 사람과 관계)

저는 mbti가 ESFJ입니다. 사교적 외교관이죠.

원래 10대 20대 초반까지는 estj였어요.

젊은 꼰대.

왜 바뀌었나. 결국 또 사람이었어요. estj은 젊은 꼰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잖아요. 원리 원칙주의자가 완전 빡빡하고 앞뒤 꽉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 안의 규율이나 이런 걸 조금 허물었죠.

인간 친화적 느낌으로.

그러면서 fj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0년이 돼서 바뀐 지 거의 10년이 돼서 특별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10대 때가 estj이니까 딱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모범생이었어요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딱 진짜 전형적인 모범생.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했고.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10대 때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예쁜 친구도 아니고 친구가 많은 친구가 부러웠어요.

저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애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나도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되게 10대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이미지 쇄신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초중고를 같은 동네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너무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라서 대학에 와서 이미지 쇄신을 꾀했죠.

나를 알던 사람이 없으니까 인싸는 아니지만 인싸인 척 해보고.

그렇게 한 해 2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대할 때 esa fj인데.

사실 여전히 업무를 할 때는 tj이긴 해요.

되게 원리 원칙 주의자고.

근데 그래도 10 대 때 제가 원했던 모습으로는 변한 것 같아요.

주변에. 지금은 확실히 20대 때는 저의 20대에는 사람밖에 안 남은 거 같거든요.

친구. 그래서 제가 (인터넷 보면 기사 보신 건 알겠지만) 수험생활을 오래 했었어요.

수험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험생활 하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끊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하는 동안 내가 공부 끝나고 돌아왔는데 친구들 돌아섰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거. 저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긴 했지만. 에이, 그러면은 그냥 그런 친구는 아니지. 빠이. 빠이 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쿨해 지려고 노력 했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수험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데 수험생활 가기 전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시간만 숭덩 떼간 것 같고, 공부하기 전이랑 공부 끝난 후랑 이렇게 이어 붙인 것마냥 주변 사람들이 되게 한 명도 안 떠나가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20대의 아쉬운 점을 꼽으면 한도 없이 많지만 그래도 10대에 내가 가장 크게 바랐던 거 하나는 이뤘으니까.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냥 저의 20대를 평가합니다.

\*시간관리

그거랑 시간 관리. 시간 관리. 왜 물어보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이 제 sns 팔로워세요. 제 sns 팔로워인데 제가 지난 상반기에 아직.

이제. 이제 하반기네. 오늘부터 하반기는 상반기에.

네 42를 하면서 스타트업에서 인턴 생활을 잠깐 했었고요 그러면서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했어요.

네 제가 그가그래가지고 사실 바디 프로필은 이거는 인터뷰와 별개인 tmi이긴 한데

정말 작년 하반기처럼 올 상반기도 42만 하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까 봐, 시간이 많을 줄 알고 피티도 끊고 헬스장도 끊고 스튜디오도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됐어요(웃음)

그래가지고 제 의도와 다르게. 죽음의 피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자본주의 사람이라, 헬스장에 맡긴 돈 찾으러 가는 마음으로다가 회사 출근하기 전에

6시 반에 매일매일 월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출근한 두 달 정도 출근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에 헬스장 가서 50분 운동하고 퇴근하고 나서 9시에 일주일에 두 번 필라테스 일주일에 한 번 피티하고 그렇게 해서 아침 저녁 운동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10시에 일어

그러면은 필라티스 가서 1시간 하고 11시에 헬스장 가서 집에 오후 1시에 오고 일요일 날도 눈 뜨면 아침 10시에 회사장 가서 집에 한 12시 반 2시간 주말에는 두 세 시간씩 하고 평일에도 거의 한두 시간씩 했거든요.

운동을. 그러면서 블랙홀 압박이 다가오면서 이제 주말에 이제 오전에 헬스하고 오후에는 왜냐면 평일에 출근해야 됐으니까.

오후에는 42이 나와서 과제하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전 42 과제하기도 벅찬데 혹시 몸이 다섯 개 냐고요.

약간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물어보신 것 같았고.

자기 전에 누워서 다음 날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몇 시에 뭘 하고.

뭔가 일정이 빡빡할 때에는 그 우선순위를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파악을 하고 좀 약간 좀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좀 더 약간 쪼개는 편이거든요.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뭐 하고 뭐 하고 약간 그렇게 쪼개는 편이 누워서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특별히 막 엄청 바쁜 일정 없이 그냥 큰 굵직굵직한거나 약속이 있으면

자기 전에 누워서

뭐 10시까지 개포 가야 되니까. 개포 가는 데 1시간 걸리니까

집에서 나가야 되고 9시에 집에서 나가려면은 한 7시 반쯤.

일어나서 샤워하고 연 한 20분쯤 아침 먹어야겠다 약간 그 정도 생각을 해놓고 자요.

다이어리 써요.

요즘도 조금 일정이 빡빡해서 쓰는데.

데일리만 쓰는건데,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써놔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 뭐 가지고 싶은 습관.

이걸 제가 생각해놓은거

그냥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약간 투드리스트처럼 오늘 해야 될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x 동그라미 치면서.

왜냐하면 일정이 많을수록 까먹어요. 일정이 많은데 까먹어요. 해야 될 게.

여기도 이제 건강검진 뭐 운전면허 이력서 쓸 거 증명사진 찍기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뭐 할 거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를 조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생각으로 하는데 사실 제일 큰 거는 자기 전에 누워서 다음 날 뭐할지 시간을 쪼개서 미리미리 (생각해두는거)

\*꽂히면 제대로

저 약간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제가 이번에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이러면서 진짜 독한 사람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pt를 받긴 했는데 진짜 칼식단을 했고요.

운동도 매일매일 나가서. 오죽하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회원님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약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친구들이 대체 뭔 짓을 했으면 트레이너 선생님이 회원님은 나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냐고 그 약간 그러는 거예요.

보통 회원님 내일은 나오실 거죠. 이래야 되는데. 회원님 내일은 쉬세요. 잘 쉬는 것까지 운동이에요.

약간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독한 년 맞는 것 같습니다

꽂히면은 제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대신 모 아니면 도예요. 그니까 각 안 나오거나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성격.

대신에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하는.

이거 약간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한 60% 정도 들면은 고하는 편. 근데 약간 그런 점을 후회하고 있어요

요즘에 느끼는 건데 제 20대를 돌아봤을때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 문제를 풀 때 답을 고르는 방법이 누가 봐도 이게 답이다 이러고 딱 답을 찍는 것도 있지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닌데. 이거 남았네. 이게 답인가 보다 라고 찍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20대 때 했던 짓은 오지 선다에서 하나의 베스트 답을 고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왔을 때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네 이러고 해보지도 않고 패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완벽한 답을 찾으려고 10년을 헤맨 것 같아요. 20대를 그렇게. 아직까지 못 찾았지만.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그냥 기회가 오고 뭔가가 주어졌을 때 일단 해보고 나서 아닌 것 같으면 그거를 오지선다에서 재꼈으면은 조금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견문이 넓어지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냥 머리로만 재고 따진 다음에 하나의 답만 고르려고.

내가 생각한 답이 아니라고. 그냥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후회가 조금 느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습관을 요즘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뭐든 해보고 말하기로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마인드로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해보지도 않고 왈가왈부하고 그냥 앉아서 각 재는 거. 머리 굴리기.. 하지 않고 그냥 기회가 오고.

그냥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아닌 거 아니고서야, 일단 해보기

뭔가를 한 다음에 그게 나랑 맞는 거를, 전에는 나랑 이게 나랑 맞는구나라고 아는 것만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나랑 맞지 않아서 다시는 저거 해보지 않아. 저쪽 안 갈 거야라고 깨닫는 것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동안은 그런 그건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 해보지도 않고 제꼈던 게 좀 아쉽죠 이제.

그래서 이제는 그냥 뭔가 주어지면은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 3월달에 인턴을 했어요. 평소에 저였으면은 누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한 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러고 이번 안 하려고 이랬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그 점이 아쉽게 느껴지던 차에 그런 제의가 들어와서 평소였으면 노 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느낄 때라서 그냥 해볼게요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경험이 진짜 좋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되게 느낀 바가 많았고

그리고 42를 그만두게 되는 것도 거기에 약간 연장인 거 같긴 해요.

\*블랙홀에 대해. 블랙홀 밖의 세계에 대해

앞으로 개발은 하지않을 것 같아요. 42를 하면서 1년 동안 저는 과제를 하고 개발을 할 때 느끼는 성취감보다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마스터로서의 행보처럼, 42 생활에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하는 게 좀 더 보람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은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이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

이제 1년 됐잖아요. 그동안은 제가 뭔가 계속 아쉬움이 있었어요. 뭔가 내가 개발을 좀 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질질 붙잡고 했는데,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깨달은 점이 나는 개발을 업으로 가져갈 사람은 아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개발자로 취직을 하고 코딩을 공부를 할 게 아니라면, 42에서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있는 바에야

그 과제를 할 시간과 스트레스를 덜어내고 나에게 맞는 다른 걸 탐색하는 데 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42에서 주는 그런 소속감과 안락감 때문에 개발할 것도 아닌데 다른 세상으로 나갈 생각을 크게, 열의 있게 하지 않는 것 않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스스로 울타리를 쳐버린 거죠. 이 울타리 안이 너무 안락해서 이 울타리에서 천 년 만 년 살 거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울타리를 손으로 부숴버린거예요. 울타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2를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블랙홀에 빠지기 전에는 ‘블랙홀에 빠지는 것= 나쁜 것’ 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쁜 것. 성실하지 못한 사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빠지고 보니까 블랙홀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저처럼 42는 너무 좋지만 개발을 할 게 아닌 사람은 여기서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블랙홀 가는 게 맞아요. 물론 진짜 딱 42 들어오자마자 해보지도 않고 블랙홀 간 사람, 그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본인이 과제를 충분히 해보고 42 와서 진로 고민을 해보고 나서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었구나 개발이 안 맞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혹은 또 다른 길을 발견해서 블랙홀 통해 42월드를 떠나 다른 행성으로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슬랙에 마지막으로 썼던 글에 블랙홀로 간 카뎃의 새로운 행보를 보여드리겠다라고 썼는데,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블랙홀로 빠지고 나면, 정말 시커먼 블랙홀에 먹힌 듯이 그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42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개발이 안 맞아서 나간 사람이고 42는 여전히 좋고 마스터를 할 정도로 42에 애정과 있고 사람들도 좋기 때문에 블랙홀에 가더라도 (과제는 안 하지만) 42 사람들하고는 잘 지낼 수 있고 클러스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블랙홀에 간 사람이 이렇게 개포동에 놀러오고, 카뎃들하고 아무일 없다는듯이 하고 하하호호 수다 떨고 근황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일주일 한 번씩 그냥 놀러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가다가도 이제는 안 놀라고 또 왔구나 약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랙홀 빠진다고 되게 아쉬워했을 때도 제가 아쉬워하지 말라고 한 게 진짜 인트라만 닫혔을 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 42 출신이고 42 카뎃 중에 한 명이었고 개포동에 언제든지 놀러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은 쓰지 않습니다. 클러스터는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카뎃일 때도 클러스터 잘 안 썼어요(웃음))

뭔가 블랙홀로 간게 ‘안 돼! 구멍에 빠졌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가는구나. 잘 가. 또 놀러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블랙홀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블랙홀에 간 카뎃의 새로운 행보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였고 가끔 일부러 월렛상점 날 와가지고 상점에 앉아 있고 막 그래요. 커넥티드 가서도 막 앉아 있고, 아예 클러스터에서 약속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물론 과제가 힘들어서 가는 사람은 구출 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42를 경험을 해본 다음에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게 더 낫다 생각했으면은 다른 행성은 충분히 이주할 수 있고,

이사 가도 충분히 클러스터에 놀러 올 수 있는거고.. 그러니까 내가 와도 놀라지 마세요(웃음)

마치 다른 다음 서클 과제를 하듯이 다른 행성으로 이주한 거예요. 전 이주를 했고 자주 놀러 옵니다.

\*꼭 해주고 싶은 말.

비전공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42 과제부터 하자. 고민하지 말자. 그 말이 너무하고 싶었어요.

(저는) 비전공자고 피신 때 코딩을 처음 접했던 사람이잖아요. 본과정에 오자마자 현타가 온거예요.

나는 이제 코딩 처음하는데,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주변에 같이 들어온 카뎃들 보면 나는 뭐 해볼 거야, 하고 다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뭘 하고 싶은지 찾겠다고 본과정 들어오고 두 달을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아, 비전공자가 42 들어오면 주변이 뭘 어쩌든지 간에 그냥 42과제부터 해야겠구나. 미적미적 거리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그때 슬럼프 와서 첫과제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같이 시작한 카뎃들과의 진도가 겉잡을 수 없이 멀어져요.

그럼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뒤까지도 다 밀리거든요. 그럼 뒷과제를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더 점점 더 현타가 와요. 다른 애들 다 저거하는데 나만 왜 여기있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합격의 기쁨만 가지고서, 그냥 첫날부터 첫 과제를 시작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변 카뎃들하고 같은 과제를 그냥 시작을 해야돼요.

진짜 다 비전공자들 들어오면 다 똑같거든요. 현타 맞고 시작해요. 그냥 무조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과제부터 해라.

절대 절대 동료들과 진도 뒤쳐지지 말라고.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한 두 달 밀려도 연쇄 추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연쇄 추돌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맨날 블랙홀에 허덕이고 맨날 현타 맞고. 블랙홀 일수 많으면 현타 덜 와요.

주변에 주변에 같은 과제 한 친구들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친구들 과제 할 때 같이 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0서클이 바닥이고, 바닥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요만한 시야 하잖아요.

근데 서클이 올라가면 시야가 조금씩 높아져요. 그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공통 과제는 절반정도 지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들은 뭘하나

행사. 그러니까 뭔가. 그 42가 아까 말했을 카드 주도의 행사 그런 것들을 약간 아무래도 그냥 일반 카뎃끼리 총대 메고 하고 하기 힘드니까.

그런 건 총대 메주는 사람, 일 수도 있고.

보칼 분들의 dm 창은 미어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보칼 분들끼리 dm을 하면은 빠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 또 마스터들한테 디임을 하면은 빠른 처리가 가능할 수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마스터가 들어보고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거면 답변을 해 주고 답변을 못하는 거면은

따로 마스터들 채널이 있거든요 슬랙에

걷다가 물어보고 답변. 좀 더 빨리 없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보칼분들이 6,. 7명인데 지금 카뎃이 천 명이에요.

다. 신경쓸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마스터분들이.

아무래도 그래도 단위가 이제 커지긴 했죠.

한 코알리숑당 200명이 넘으니까 그래도 1천 명보다는 200명이 조금 더 신경 쓰기도 수월하고 200명의 사람들도 확실히 물어볼 창구가 있는거고

조금은 답변도 빠르고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도 카뎃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과제를 하고 카뎃 생활 하다 보면은 본인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마스터 대 마스터가 마스터와 카뎃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은 카뎃끼리 그냥 카뎃으로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뭔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을 때가 있고 이건 좀 불편하다 싶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회의 때 가서 이 얘기 안건으로 꺼내고.

요즘엔 이런 분위기도 있고 막 이것도 별로인 것 같고.

이런 건 왜 이런 거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할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약간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항상 카뎃들을 위한 회의는 늘 하고 고민을 한다.

고민은 하죠 아무래도 본인도 마스터 이기 전에 카뎃이니까.

그런데 진짜. 마스터라고 해. 사실 뭐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원오브카뎃.

없어 근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마스터가 된 된 이유 중에 하나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마스터가 없었어요.

제가 6월 30일부터 본 과정이었는데 마스터 첫 선발이 10월 말에 있었거든요.

10월 말에서 한 3 4개월 마스터가 없었는데.

그냥 그때. 저는 사실 그 사이에 저는 그냥 마스터가 없이 그냥 다 그냥 다 똑같은 카뎃이기는 했는데 그냥 똑같이 공지하고 똑같이 할 말하고 뭔가 약간 뭐 행사 같은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누가 같이 해보자 하면 행사 같은 거 한 것이지 그냥 이런 거 해보고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마스터라는 자리를 만들고 왜냐면 점점 카뎃이 많아지고 보칼들도 약간 업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카뎃들도 카뎃끼리 소통하는 게 편할 수도 있잖아요.

보칼한테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스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마스터 공지가 나와서 마스터 업무 업무가 뭔지를 읽어봤는데 마스터가 없을 때 제가 하던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른 사람이 마스터가 되고 내가 마스터 안 되면.

내 일자리가 없어서 자리가 애매해지겠다. 나는 약간 습관성으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던 거 마저 해야지,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간 것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그 마스터의 업무들이 약간 제가 원래 하던 것들이 많이 써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나 봐요. (웃음)

그래서 다들 그냥 다른 카뎃 분들도 당연히 제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작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날까지 이거 진짜 이거 해야되는 건가 내가 감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카뎃분들이 당연히 나가겠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등록했지. 약간 물어보고 그러셔서.

어. 내가 나가도 되는 자리인가 약간 싶어서. 그래서 나가게 됐어

그래서 공약도. 그거 였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냥. 그냥 특별히 긴 말 없이 그냥.

여러분이 보셨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 유지하겠습니다.

그냥 그거였어요. 공약도

그게 제가 제일 잘 지킬 수 있을 거 같아.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요.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